

나의 고백

98년 3월 어느 봄날에



손 호 준(대학부 5학년)

PART I. 내 신을 벗으라

요즘 한 지체와 일대일 양육을 한다. 얼마 전에 그 첫모임을 가졌는데,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을 같이 나누었다. 이 모임 전에 읽었던 책이다. 무슨 책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는데 자꾸가 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책을 혼자 정리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양육하는 그 형제에게 필요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것은 제목 그대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다.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의 왕궁에서는 '노예'는 신(sandals)이 없었다고 한다. 땀자국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자신의 주권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왕궁에서 왕자로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하여던 모세가 40년간의 사막의 방황 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오는 '내 일이

어
놓
합
니
다

라는 겸손한 고백. 모세는 알았을 것이다. 그가 애굽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급기야는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음을. 그는 그분의 '노예'였으며, 거기에 바로 '종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이 있었음을.

PART II. 부흥

얼마 전에 사경에서 대학부 한 선배를 우연히 만났다. 장소가 그랬으니 당연히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선배가 책 한 권을 선물해 줬다.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박해에 대해 당시 우리 나라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1907년의 평양 장천교회회를 중심으로 한 '대 부흥'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터

였
다.
내
가
다
시
금
관
심
을
가
게
된
것
은

1907년이라는 상황이다. 개항이라는 엄청난 파고와 서양의 물질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만 거뒀던, 쉽게 말해 '망해 가던'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을 때였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나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때 바로 그런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이다. 정말로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 없을 그때에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릇들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큰 선물을 주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IMF로, 정치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부르짖어 있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PART III. 나의 고백

김장민 목사님에게 사면 18편 1절이 있었다면, 내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다. 바로 내 신앙고백이다. 평생에 붙들어야 할 기도제목으로, 유일한 노래이자, 고백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 단 단순해서 그런지 그분의 십자가만 강조되면 좋다.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기로부터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옛 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나는 그분의 '노예'이고 싶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역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화심에 다름 아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그러시는 것 같다. '호준아 ... 너의 신을 벗거라. 자기를 부인하거라. 사랑하거라. 낫아지거라 ...'

나만의 가인을 아주 외면하지 않았었다. 가인이 쫓겨나 버렸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겐 7배나 벌하시다고 하셨다. 왜 죄지는 자를 돌보신 것일까? 그래서 전에 이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가족들을 주셨다.

연약 - 이것을 알아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연약을 알 수 있다. 창세기를 읽지 않고 출애굽기를 깊이 읽지 않고 수 있을까? 또 신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연약을 잘 봐야 믿음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안다.

멜기세덱 - 예수님을 예표함.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지파가 아니었다. 왕이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임을 예표함이다.

소돔과 고모라 - 45, 40, 30, 20, 10명. 그래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 과연 대학부엔 몇명인가?

'나의 두뇌' -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부전자였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신 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 -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멋진 중매. 또, 어머니를 잃고 목장하러 들에 나간 이삭. 결국 하나님을 찾다 버려지 보게 될 아들의 이름다움?

야곱의 14년의 연애 - 뜨거운 남자와 야곱의 일관된 연애. 14년을 수일처럼 한 것 정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속이는데 달린인 야곱도 속는 이유는?

요즘 GBS를 성경 한권씩 하다보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거기에 아쉬워하며 이 글을 쓴다. 성경을 좀더 자세히 보자. 숨어 있는 귀한 말씀이 많이 있다.

창세기를 탐독하고

창세기는 재미있다

장석진 대학부 7학년

창세기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말먹으면서 오래 시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다. 하지만 하도 예전부터 들어온 이야기라서 마치 호랑이 담배피고 시집의 이야기처럼 쉽게 넘기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정말 꼼꼼히 본다면 창세기처럼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고, 많은 것을 주는 말씀도 없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 그러니까." 하면 넘기는 부분이 많은 것이 문제일 따름이다. 우리의 진화론과 창조론의 사이에서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서도 말이다. "음,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습니다"라는 식이나 호화된 형태로, 하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신앙은 기초없는 믿음과 같다. 사실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만나는 곳이 창조다.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에는 기반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창조론이 '창조과학'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과학은 과학이고, 창조는 창조다. 다만 창조할 시 때 '지혜'로 지으셨음을 봄으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과 지혜는 다르다. '창조과학'은 과학에서의 진화론의 과학적 결합을 말해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창조는 믿음의 부분이다. 과학과 논리, 논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은 필요하다. 과학으로 주장되는 진화론의 '잘못된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믿음으로 증명한다면 이것도 이상하다. 이것은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된 신묘막측한 것이다. 세상은 마치 과학적으로 보인다. 과학적이기도 하다.

창세기를 보며 생각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 창세기만을 통해서도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배워온 대로 '첫째날은 ... 둘째날은 ...' 하버 만드신 에기를 할 수 있었고, '빛이 있리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할 말이 많다.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것은 '빛이 있리라' 하신 말씀에 '잔 ...' 하고 순종한 '빛'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자 피조물의 의무(그리고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빛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불나의 햇빛을 보면서 우린 순종한 빛의 모습을 떠올리며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말씀이며, 언약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종의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변별되는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아마도 아들을 죽이심에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므로,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가? 그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하지만 인간은 빛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외에도 결혼, 독처함이 안 좋음, 뱀에게 뱀, 한몸을 이몸, 돕는 배필, 문화혁명(1:28) 등등. 참 재미있지 않은가?

몇 가지 더 생각할 것

· 가인과 아벨 - 죄로 인한 죄의 급속한 발전? 난 가인의 범죄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



교구 영성훈련을 다녀와서

봄비와 함께 임한 은혜

한 성희(집사, 12교구)



지난 해 12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두번씩이나 연기되었다가 새해 목회에 따라 다시 준비하며 기다렸던 영성훈련. 3월 19일 봄을 재촉하는 비 때문인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우산을 들고 식구들을 맞아 주는 남자 집사님들의 반가운 목소리는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의 그것이었다. 이른 아침 집안 일과 생업을 뒤로 한 채 어느새 버스 안에는 교구식구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망과 기대에 찬 모습은 태양 너머의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된 평화 그것이었다. 거제 한파도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었다.

기도원에 도착해보니 찬양의 메아리 소리가 하늘 나라를 연상케 했다. 기도원 사역으로 3월 내내 기도원에 계시는 지도 전형준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박승준 장로님의 사회로 시작한 찬송과 김영숙 전도사님의 기도는 메아를 성령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목사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육을 받으시고 육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위험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으니, 결국 우리들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에 눈물 흘렸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

었다. 바로 바 말씀 속에 해갈된 우리들은 두 손을 모았다.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위해 뜨겁게 울려지는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단일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의 개으름과 불순종한 마음을 회개했다. 모두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성령님의 온유하신 숨결을 느끼면서 영성훈련은 무로워어 갔다.

삼삼오오 구역식구들을 챙기는 구역장들의 모습은 사랑과 섬김의 표본이 되었다.

2부로 진행된 지역별 찬양은 입가에 주름을 더욱더 만들었고, 두 손을 높이들고 울뚫히는 모습은 다윗의 찬송을 보는 듯했다.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시는 집사님이며, 가장 젊음에 자신 있어 하는 마리아 회원들의 찬양은 기도하며 준비한 모습들을 역력히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찬양은 관중을 잠잠케 했으며, 쏟아지는 박수소리의 물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계속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기도원 장로님께서는 봉사 시간을 개인 기도 시간으로 바꾸어 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구역구역 무릎 꿇고 앉아 영적 재충전을 더욱 다졌다.

마주 보는 얼굴에는 어느새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마주 잡은 두 손에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흐르고 있었다.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길이 승리하는 삶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은혜로운 영성훈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수화물 배우우

한 성희

수화에 사랑을 담고

민 지은(대학부)



지하철 속의 한 구역에서 서너명의 남자가 열심히 수화로 싸우고 있었다.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건강인)이었다면 아마도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 눈길이나 자꾸만 그쪽으로 갔다. 가슴이 쓰렸다. 얼굴을 핑그림과 빠르게 강렬하고도 큰 그들의 손짓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3부예배때 수화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회개와 믿음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수화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무릎을 꿇고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결코 이런 아름다움도 진심된 동작을 감동적으로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대신 온 몸으로 찬송케 하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깊이 깨달았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혹 들을 수 없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시키려고 할 만큼 자신의 단일함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는가? 불행에 피한 자신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불행에 끌어 안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중국어를 사용하며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수화를 배운 지는 약 한 달정도 되었는데 중국어로 수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영어 수화도 배우고 싶다.

내가 대안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대안에서 만났던 두 자매가 생각났다. 농아인 여동생을 위해서 삶들을 다 바쳐서 동생의 혀가 되어 주고, 마음이 되어 주고, 대신 울고 대신 말하던 그 자매의 모습. 나는 그 앞에서 그저 어리둥절해 하면서 무슨 것인지도 모르는 동작을 몰고다니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필가를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가슴은 저렸고 마음은 가라 앉았다.

나에게는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희열이 없다. 언어를 몰랐던 때에는 중국사람에 대해서 지각이 많았지만 대화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언어를 사랑하게 되고,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중국과 대만의 모든 것이 나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수화를 배운으로써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벌써부터 나를 설레게 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테니가 말이다.

새가족을 양육하며

지극한 기쁨

김 오 레(집사, 새가족부 교사)

어느 날 중년부부 가족이 저희 반에 신입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반에 신입된 새성도님들이 한 분도 실족되는 일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똘똘신 교회의 지체로서 온 일꾼 삼아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전파 심방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더니 부인께서 남편 구원을 위해 많은 노력 끝에 간신히 천국교회에 등록했으니 잘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몸이 뻐 뻐 있었습니. 그런데 신앙이 없는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 전정을 멀리하고, 필박하여 참으로 참기 어려워서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딸의 불행은 볼 수 없어 가진 품파와 마음의 갈등을 겪다가 이는 마귀의 조작다 싶어 남편을 설득하여 동네 교회에 가졌으나 한 번 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 믿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다 하며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 거듭나게 해 달라며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에 온 가족이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반 성도들과 같이 대한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집회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부부가 같이 믿음을 생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 때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서는 안의 무리에 휩쓸리기 위우며,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기도이니 날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매사에 감사해 보신다고 말씀되었습니다. 또 이런 회회에 새가족부 집회를 꼭 참석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교인이 되어서 얻은 다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라고 했더니 그때야말로 대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온 가족이 열심히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말씀이 "참 신기해요. 요즘은 남편이 화도 잘 내지 않고 주일 특근일에도 동료들에게 부탁하고 어서 교회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 역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지만 별로 걸척없이 열심히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해 주신 이 귀한 분과 그 남편은 6개월 뒤로 동시에 학업을 마쳤고, 부인께서는 새를 받은 분이라 수로만 하고 다른 부수로 배정받아 가셨습니다. 수로식이 끝난 다음주에 부인께서 새가족부 집회실로 찾아와주었습니다. 남편께서 그동안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교회에도 잘 나오고 믿음생활도 잘하겠다고 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새가족부 교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지난 3월 19일(목)에 영아부 교사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회개와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 영아부 교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 받고 깨닫고 이기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한 교사들을 우리 예수님은 안아 주셨다.

한편 오늘은 오노, 스테판, 나사로, 다윗과 골리앗 등 제미들은 성경이대로를 중심으로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송혜경 통신원)

▶ **유치부** / "애들아! 우리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잘 낀다고 다투어있어. 그러나 손 오마기 잘 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화를 듣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별처럼 빛났어.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처럼 말이예요. 그런 어린이들을 지켜보는 교사들의 마음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오늘(3월 29일) 1부에는 꽃반이 '사도신경'을, 2부에서는 열매반이 '십계명' 외우기 대회를 열었다. 우리 총현의 꼬마 친구들이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더욱 기도로 격려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 **유년부** / 유년부의 중요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학부모 초청 학부모회는 오늘 3월 29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교육관 304호 유년부 교실에서 있었어. 이번 행사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및 성경 사색 발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의 상관 관계를 통한 올바른 어린이 신앙 교육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제시하게 될거예요. 이 유익한 시간에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답니다.

또한 유년부에서는 주일 오전 10시 50분 2부예배 시종(始終)에 맞춰 교회 주변 어린이들을 차량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충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논현초등학교에서 전도하고요 주일날 어린이들을 차량 수송하는 장흥회·한계순 부부 집사님과 장지현 선생님의 수고로 학생들이 매주 2, 3명씩 새로 출석하고 있는 바, 더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매주 일 오전 학동초등학교 전도로 수고하시는 김영희 전도사님과 이경숙 집사님에게서도 어린이 전도로 정성을 쏟고 계시답니다. 이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많은 어린이들을 고맙고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믿을 때 함께 차량 수송의 뜻으로 동참해 주실 충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전화 552-8200(구 내전화 441) 유년부 교사실로 곧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주 통신원)

▶ **중등1부** / 공과교육 찾하기를 3월에 마지막인 학부형들을 초청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학부형 초청기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부형 초청 기도회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있어 학생들이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담임 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부모 초청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위침들이 도사라고 있는 중학교 생활을 막 시작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아 통신원)

▶ **중등2부** / "선생님 교육 갈게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평개, 저런 평개로 빠지던 녀석이 오늘은 꼭 온다는데 ... 왜 이리도 1분, 2분 ... 시간이 더디 가는지 ... 다시 전화를 건다. 543-.... "선생님(가)의 모기만 하세요" 저어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어디 이런 친구가 한동안 가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인가! 그래도 우린 뭐! 명명한 목소리로 다음을 약속하기 위해 주님께 다ий원을 맞춥니다. 주님 힘주세요." 성훈아, 한때! 다음 주에는 꼭 만나도록 하는지? 선생님은 괜찮아! 또 전화할게." 괜히 꼬이게 해준다. (나성애 통신원)

▶ **청년2부** / 지난 26일(목)은 총동원 전도의 날로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찬양과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복음의 씨앗은 사람이 뿌리듯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노방전도 및 평민전도(매주 월요일 중앙병원에서 실시)에 관심있는 30대 청년들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한편 청년2부에서는 매주일 저녁 6시 20분부터 선교과 2층 교역자 회의실에서 기도화(조장) 양성을 위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 **에비다부** / 오늘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개월간 배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가졌다. 에비다부의 초등반 학생들뿐 중, 고등, 장년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암송대회에 참가하여 에비다부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다.

▶ **탁아부** / 맡겨지는 아이들이 200명에서 350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명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 교사들을 모집한다. 탁아부는 주일 1부예배시부터 저녁 찬양대까지 운영되는데 가능한 시간을 데하여 봉사하면 된다. 탁아부실은 본당 지하 1층 갈릴리움 뒷편에 있다.

▶ **1교구** / 믿음의 승리의 길찾기 올려진 1교구 영성훈련, 3월 24일, 7개월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권사님까지 구성원들은 기도의 성전에 올랐다. '봉사를 통한 신앙인' (제 411-16)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홍성 목사님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자와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사를 뜨겁게 전해 주었다. 권속들이 말씀을 통해 만나를 먹고, 기도를 통해 호흡하며, 봉사를 통해 운동함으로써 주님처럼 대이 어트(?)할 인생을 면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은혜일리라.

식사 후 개인 기도실의 만지를 들고 담으면서 우리의 심령엔 죄의 씨앗이 자신도 모르게 싹트지 않고 있나 점검하는 마음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고난 후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순절이 되어 생명의 부

활을 기대한다. (임동복 통신원)

▶ **15교구** /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배우자와의 사별(死別)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중 최고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뜻밖지인 한자의 '인(사람인)자가 뜻하듯이 돌이 서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데 서로 지탱해주던 한 쪽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치는 법을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야 연습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같은 삶의 목적과 같은 소망을 갖고 돕는 배필로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그곳인 육체를 벗는 날 주님의 부름으로 천국에 가게에 천국가는 환송식(장례예배)을 갖는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환영식을 이행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환송하는 삼문관행의 찬양이 화답하는 환송식이 지난 21일 15교구에서 있었다. 사랑하는 아바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데 가장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한숙정 통신원)

▶ **총현목사관** / 복지관에서는 3월 19일(목) ~ 20일(금) 2일 2일동안 일산 YMCA 수련장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겸한 장거리 사파적 적응 훈련이 있었다. (사진) 직접 훈련생 83명, 직원 18명 총 101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번 장거리 사파적 적응 훈련은 신입 훈련생과 기존 훈련생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훈련생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담임 선생님들과 훈련생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비가 계속 내려 모두들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도착해서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잘 마칠 수 있었다.

반별 소개 및 자기 자랑, 레크리에이션, 반별 대화의 시간, 미니 율법, 매거지 속주, 충현 합창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자기 자랑 시간에는 포크 밴드, 훈련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여 비디오로 촬영한 대화, 패션 쇼, 연설 등 매우 다양한 순서들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훈련생들의 숨은 재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훈련생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였다.

반별 대화 시간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선생님들과 훈련생들이 함께 하나같이 되어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그치고 날이

맑게 개여 운동장에서 미니 율법극을 하였다. 매거지 속주를 하면서 교사들과 훈련생들이 함께 이루어진 운동장을 신나게 가로질러 뛰며 꽃샘 추위를 녹였다.

1박 2일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사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 1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 가능한 분이면 누구나 환영이다. 활동시간은 토요일과 주일이다. (문의: 564-4885, 565-7564)



4월 5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충현남성총합당

(지도 및 반주 / 김윤경)

〈찬양곡〉

· 예수

· 내 주를 가까이

· 천국 종지네

◆ 3부예배

피아노 3중주

(바이올린 / 장원희,

첼로 / 조윤경,

피아노 / 노홍진)

〈찬양곡〉

· 나 같은 죄인(한 405장)

· 주님의 열매 보라

· 목마른 사슴

·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 오 신실하신 주(한 447장)

◆ 4부예배

비리온 감금구

(반주 / 김남욱)

〈찬양곡〉

· 저 멀리 푸른 언덕에

· 하나님 주의 손

· 고분의 땅에 벗으려고(한 330장)

· 갈보리산 위에(한 135장)

◆ 5부예배

비리온 감금구, 대학 · 청년1부찬양대

(반주 / 김남욱)

〈찬양곡〉

· 고분의 땅에 벗으려고(한 330장)

· 갈보리산 위에(한 135장)

· 거룩한 성

알림

충현소석성직학후보기도회

· 일시 : 3월 31일(화) 19:00

· 장소 : 만나홀

모임 장소 변경

· 10교구 모임 : 나사렛홀

· 5부찬양대 연습 : 본당

교회소식

☎알림

1. 구제현교 / 오늘 I, II, III, IV, V부예배시 드림니다.
2. 고난주간 및 전교인 금식일 안내 /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고난주간이며, 특히 4월 10일(금)은 전교인 금식기도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부예배 시간 변경 / 4월 1일(수)부터 수요일부예배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4. 부지역장, 구역장 훈련 / 매주 수요일부예배 후, 각 교구별 장소
5. 남성성도구역장 훈련 / 매주 수요일부예배 후, 베다니홀
6. 차량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 교회내 차량 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차량관리부실(문당 지하1층)
7. 크로마하트 · 만돌린 신입 대입모집 / 오늘까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김옥순 집사(크로마하트 548-6916), 이연순 집사(만돌린 3463-0434)

☎모임

1. 장로 회오새벽기도회 / 31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301호
3. 직능전도부 월례회 / 오늘 15:00, 선교관 405호
4. 교정전도회 월례회 / 4월 5일(다움 주일) 15:00, 갈릴라홀
5. 실업인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 15:00, 실업인전도회실
6. 실업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4월 2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7. 흥헌유지재단 이사회 / 4월 3일(금) 18:00, 칼빈홀

8. 안수집사회 월오새벽기도 성경공부 / 30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9. 권사회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라홀

☎남녀전도회

1. 바울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 요한 11:3 / 오늘 14:10, 칼빈홀

☎결혼

1. 김태근군(김용대 집사, 채귀순 권사의 아들, 제14교구)과 유소영양(유근우 씨, 강복희 씨의 딸) / 31일(화) 13:00 갈릴라홀
2. 김광석군(김학중 집사, 김발수 권사의 아들, 제14교구)과 이정아양(김재영 성도의 딸) / 4월 3일(금) 13:00 갈릴라홀
3. 신형우군(신관희 씨, 김양성 씨의 아들)과 김성숙양(김상순 성도, 김형태 집사의 딸, 제19교구) / 4월 4일(토) 13:00 갈릴라홀

☎별세

1. 이덕삼 은퇴집사(최혜경 권사 남편, 제14교구 하안2구역) / 20일 별세, 21일 장례

☎4월 주일 및 수요일에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전양 예배 (전우집사)		수요일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	II
4	5	김희철	차신록	김현태	조인재	최무길	김용석	한용철	고준하	김호준
	12	이종국	박민진	이종식	임재진	원승철	김준서	강순남		
	19	이인상	이병호	김인관	최병환	정문식	이형수	권병태	권순애	
	26	서동식	이종식	김광남	손경수	안종국	최자용	김경태	김정순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32	홍종희	1	소망부	전은영(1)	644	김수환	19	대학부		656	오주희	19	대학부	
633	윤인자	4	대학부		645	이연정	19	대학부		657	엄은향	19	대학부	
634	이상근	6	청년1부		646	한미애	19	청년1부	심인식(2)	658	임혜진	19	청년1부	김근실(3)
635	신수정	6	청년1부		647	최영민	19	청년1부	이진규(7)	659	손숙현	19	청년1부	
636	신수미	6	청년1부		648	강지원	1	청년2부		660	주미연	19	대학부	구자현(16)
637	김진수	6	베드로	김재기(6)	649	주은숙	1	청년2부		661	송영진	4	청년2부	송영준(17)
638	김영숙	6	루디아	김재기(6)	650	박현수	19	대학부	노성길(2)	662	최희자	4	청년2부	송영준(17)
639	김희정	6	대학부	김재기(6)	651	이미진	19	대학부		663	원영근	6	청년2부	
640	최동영	13	청년2부	배만수(5)	652	유광희	19	대학부	한보현(17)	664	윤주연	6	청년2부	
641	최치훈	17	요한		653	김은숙	19	대학부		665	전은정	12	청년2부	이선숙(12)
642	이보영	4	에스터		654	신미경	19	청년1부		666	최희자	19	청년1부	이상은(10)
643	김성희	4	루디아		655	김성준	19	대학부		667	방성훈	19	청년2부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 ①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속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진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김경철의 내직생활을 심원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감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게 하소서.
- ③ 주간성경공부, 교구별 영성훈련, 남성도 구역모임, 구역장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④ 다음 주일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는 흥헌 남성찬양단(2부), 바이올린 장현희(할렐루야오케스트라, 3부), 마린론 김임구(찬양감독, 칠로안찬양대 지휘자, 4부), 마린론 김임구, 대학 · 청년1부찬양대(5부)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⑥ 새벽기도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함은 힘있게 일어하게 하소서.
- ⑦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흥선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한근수

김필수

전영준

김재현

이승수

장갑선

장현민

조복한

조철수

김종하

차병문

김병식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하

■ 협동목사

윤정석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동근

안석렬

김영태

■ 장로

이종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전현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민

최희배

손비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복수

한영준

박동희

박희자

김영숙

■ 교정전도사

박민지

■ 교육전도사

박민지

■ 성서전도사

박민지

■ 청소년전도사

박민지

■ 청년전도사

박민지

■ 유생전도사

박민지

■ 김형선

이기성

김형영

고은민

1998. 3. 29. 제98 - 13호
사무열상 29장 ~ 사무엘하 18장

흥헌 성경통신 강좌

(제) 교구 구역) () 이름_____

1. 다음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사무열상 29 ~ 사무엘하 6장)

- 1) 너는 돌지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말라 ()
- 2) 다윗이 시달람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
- 3)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벳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칠일을 금식하였더라 ()
- 4) 다윗이 이 술큰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
- 5) 다윗의 신복들이 배나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처서 삼갈 속의 명을 죽였더라 ()
- 6) 아브넬을 위하여 여가물을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은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을 길은 ()
- 7)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
- 8)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
- 9) 다윗이 변제와 화제목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

2.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무열하 7 ~ 13장)

- 1) 이제 청년대 중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 있게 하옵소서

- 2)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를 행했다
- 3) 브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더라
- 4)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 () 앞에서 패함을 보고
- 5)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니라
- 6)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들 ()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 7) 알살롬이 도망하여 ()로 가서 거한지 삼년이라
3.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사무열하 14 ~ 18장)
- 1) 알살롬이 이때 동산을 헤브론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
- 2)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자기 유하니라 ()
- 3) 알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
- 4) 다윗이 일어나 집안 사람들로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데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
- 5)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알살롬이 내 아들 내 아들 알살롬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빌립보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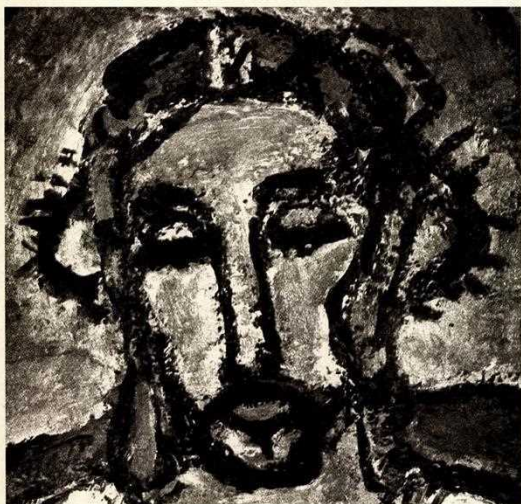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통해 자기 부정의 신앙 회복하기

4월10일(금)은 전교인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는 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6일간 있었던 마지막 고난의 행보들을 기념하는 특별한 기간이다.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해 단순화시킨 행사들 몇가지만을 기념해 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의미가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해 묻히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신교의 고난주간은 주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잠기도록 요청하는 형태로 기념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고난주간 기념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이 기간 중에는 오락을 금하고 공예배에 보다 충실히 참석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간동안 은행과 상점들이 문을 닫는 일들도 있었다.

충현의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자기 주장으로 이어져온 생활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 부정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지길 믿어왔고, 특별히 전교인 금식일로 정한 10일(금)에

는 금식기도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생활의 고난을 예수 신앙으로 이겨내는 특별한 기회들을 가져야 하겠다. 한편, 교역자 전원은 이번 금요 금식일에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

요일	사건
주일	예루살렘 입성(막 11장)
월	성전 청결케 하심(막 11장)
화	예루살렘 멸망과 제림 예언(마 24, 25장)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요 12장) 예수님을 따는 유다(눅 22장)
목	제자들과 유월절 지킴(요 13장) 겔새마네 기도(요 17장)
금	겔새마네에서 잡히심(막 14장) 안나에게 심문받으심(요 18장) 산헤드린의 정죄받으심(막 14장)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함(요 18장) 유다의 자살(마 27장) 빌라도의 심문(눅 23장) 해롯안디바의 조롱(눅 23장) 빌라도에 의한 사형 선고(요 19장) 십자가에 못박히심(막 15장) 성전 휘장이 찢어짐(마 27장) 무덤에 묻히심(요 19장)

부활절 찬양 다음주일 찬양예배시 가브리엘찬양대에서

가브리엘찬양대는 부활절 특별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에 전력을 쏟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과 주일에 모여 연습하는 가브리엘찬양대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열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은 성도들은 기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겠다. 특히 나라 전체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저녁에 모여야 하는 대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면서 부활절의 찬송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위한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립인전도회에서는 보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와 각 가정의 영적 부흥과 갱신을 이루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 기도회 인도는 이홍성 목사(설립인전도회 지도), 전형준 목사(군전도회 지도), 김재철 목사(교정전도회 지도) 등이 담당하게 된다.

〈주간충현〉 인쇄용지 바뀌 교회 절약 운동의 일환

〈주간충현〉에서는 교회 절약 운동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4월부터 인쇄용지를 미색 모조지에서 중절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비 절약은 연간 6백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일 오후 특별기도회

설립인전도회 주관

군·교정전도회에서 후원 동참

설립인전도회는 기도 외에도 국가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절감하면서 4월 5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사랑부심(교육관 107호)에서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군전도회와 교정전도회도 지속적으로 이 기도회를 후원하고 동참키로 하였다.

이 기도회는 열린 기도회로 구국을

4월의 주요 일정

5일
종려주일
6-11일
고난주간
8일
경기도회
10일
전교인 금식일
12일
부활절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4월 7일(화)
제6교구
4월 9일(목)
제5교구



군전도회진중집회

군전도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육군 제○○연대 1, 3대대 정병 1,400명을 대상으로 진중집회를 가졌다. 23일 아침 7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오후 2시경 부대에 도착한 군전도회 회원들(37명)은 전철준 목사 and 구명신 전도사를 감사로 하여 당일 저녁집회를 가졌고, 다음날 오전에는 G.O.P(초소)를 방문하여 정병들을 알뜰하고 사랑으로 격려했다. 이번 진중집회를 통해 결산한 정병은 360여명에 달했다.

바벨론 멸망의 예표인 앗수르의 멸망

(이사야 14:24-27)

“앗수르 때문에 억울함과 고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창인 목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사에 앗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틀림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벨론보다 먼저 당할 앗수르의 멸망 사건을 예표로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나 이루어질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 예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앗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확실한 증거로서 현재에는 위로가 될 것이고 미래의 구원에 대한 담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앗수르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 앗수르의 멸망은 죄값입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처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심히 잔인했고 교만하였습니다.

첫째로, 앗수르 민족은 잔인했습니다.

앗수르 민족은 자기들만 사람이고 다른 민족은 짐승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앗수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고 생명의 귀중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죽였습니다.

둘째로, 앗수르 민족은 교만하였습니다.

또한 앗수르는 하나님께 대항하여도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만 못하고 업신여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앗수르의 멸망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앗수르 민족에게 억울함을 너무 오래 당하

면 안되겠다고 하시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날에 앗수르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행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부산행 열차 안에 파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파란은 생각하기를 “이 열차가 부산으로 가지만 나는 그 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갈테야” 하며 남개를 파서 북쪽으로 날아서 열차의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차가 부산에 도착하면 별 수 없이 파리로 부산에 도착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제멋대로 살아 본다고 떠들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제멋대로 떠들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섬은 지주당어리를 굴러서 십판대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느 누가 심판대 앞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어도 별 수 없이 심장이 뛰는 소리와 함께 인간들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기를 “내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어야겠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펴시는 날에 앗수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1)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신비로운 섭리로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경영을 이루신 것을 체험하였었다 이제부터 남은 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

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여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당을 강남으로 이전으로 하고 이곳에 교회당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잔금 2,37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달리 돈을 구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큰 근심에 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은 은행에 있고 결재는 하나님이 하고 잔금은 그 날 치를 것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저러 잔금 치를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다들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며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300여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정도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2)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영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는 덜 밋 것 없이 땀실 쫓게 당해야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허둥지둥 뛰다가 그곳을 깨뜨리면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 땀비다가 이미 준비한 그곳까지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3)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놓을 때에 기를 어찌게 놓지 말고 뚫어놓게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하면 뜻대로 되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찰찰 내리도록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생자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여러 개 지어 보았는데 한번도 돈 때문에 땅신을 당하지 않고 신원을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진히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앙심에 멸망하실 때에 정성껏 순종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억울하고 괴로울 때에 참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항상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앗수르 때문에 억울함과 고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밭 아래 파들리라 그때에 그의 땅이 그들의 아귀에서 벗어날 것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멸망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나니 앗수르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곳을 폐쇄능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24-27절). ■



김성관 목사

유다의 죽음과 부활

(에스겔 17:1-24)

“우리는 강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뿌린 씨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뿌려주신 영원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아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배신가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여금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간접적인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용하지 않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통해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대 인자와 너는 수세끼기와 비유를 이
 스라엘 족속에 배울”(1-2절). 그리
 고 두가지의 비유를 말하게 하십니다.
 첫번째 비유(3-10절, 22-24절)는 추상적
 이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이해할 수
 있어서 두번째 비유(11-21절)는 보다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첫번째 비유는 영어를 조금밖에
 모르는 소말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이와 같은 신적 참여에서 도모할
 것이 많을 건데는 이것과 같고, 두 번째 비
 유는 아이들을 수 있도록 '보느니 다
 이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원
 한 구원계획의 정확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를 주 너희와 의 말씀에 채워
 이 구하기를 다하여 크고 이것 같고 될
 이 술한 큰 독수리에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여(3절), 말씀
 은 큰 권세를 손에 취 바벨론의 느부갓
 네살 왕을 큰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
 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레바논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 성전의 재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계보, 특히 유대 왕 여호야김의 계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움직임을 여호야김 왕을 포위하고 침공하는 느브자네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4절).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야김과 그의 백성을 잡아 가둘 것을 예고합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정이 자라며 퍼져서 놓지 아니

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5-6절).

느부갓네살은 여호야קים을 폐한 후,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
은 대단히 현명해 보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들을 향하여 뿌리까지 말하고 가다가 퍼졌다고 그 포도나무를 쓴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7:8절).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의 왕을 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맹세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위의 결말은 죽음
이었던 것이다. 시드니가 애국의 도움을
구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
움을 구하지 않으면 내리가는 자들처럼
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회피하며 바
기의 많음과 마법의 신기함을 의지
하고 이악령의 거룩하신 자를 알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번번히 아니하
고 일어서야 양해하는 자의 짐을 지고
그 언어를 듣는 자를 치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욕되
고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던 자들 다 넘어지거니 그들을 만
는 자도 일떠들거니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산 31:1-3)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이 위급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했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

이제 수수께끼같은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

솎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
 으냐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
 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불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하
 리”(9:10)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4:9-11**

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은 왕족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
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은 어찌이뇨"(렘 2:21).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를 폐하고
예루살렘 통치의 수단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
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신 22:9).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군은 흠없으며 들은 곳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도 내뿔겼습니
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너뜨
렸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모두 도망
가거나 포로로 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
다. 삼십 칠년이 지난 후 유다의 왕 여호
야김은 겨우 해방되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비극적 파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소망스런 미래를 예시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치를 위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치를 꺾어 내고 배어낸 산에서 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각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22:23절).

백향목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
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을 원했으나 그 모든 왕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을 통제하고 윤택하게 다스릴 권세가 없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왕들의 권세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에 난 연한 가지를 택하셨습니다. 비록 에루살렘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송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대상 17:11-14). 다윗 왕은 백향목을 심었던 최초의 농부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농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무는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
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
고 이루느니라 하라”(2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
다. 그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바꾸십니
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고σι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σι 높이기도 하시느니라”(삼상 2:7), “오직 제관장이 시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 75:7),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볼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쓰리시느니라”(시 147:6), “빈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눅 1:52). 하나님께서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수도 없이 오히려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뿌린 씨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뿌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다시 부

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선교

선교의 성경적 근거 6



성경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선교

예수님 자신의 이방선교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선교와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요 1:14). 그는 온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사 49:6),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해방자로 오셨습니다(마 1:21, 눅 4:18). 예수님은 광야시절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영적 기근을 영원히 해결하실 분으로 또한 구원을 이루실 승리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 중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틀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선교의 관점에서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예수님께서는(계 21:22-26) 결국 이방인들이 성전되신 그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다. 동방박사의 방문, 가버나움 백부장의 방문,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개종 등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특히 백부장의 방문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굶이 이르리라"(마 8:11-12)고 하심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원심적 선교(Centrifugal)를 보여 줍니다. 수로모에게 여인과의 만남이 그 중요한 표징입니다(마 15:21-28).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오헤리 뱃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음을 지적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심판과 이방인의 준비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게 주신 계명은 선교의 대위임령입니다. 4복음서 모두는 이 선교의 대위임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대위임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통해 사도직이 계속 계승된다는 로마카톨릭의 주장을 반대해라다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위임령도 사도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는 이에 대하여 대위임령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다는 1) 이들에게 명하신 세례 역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과 2)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교한 평범한 목사들은 허락없이 한 것이 되며 3) 선교 사업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역시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함으로써 그 부당성을 드러냈습니다. 선교의 대서명은 사도들을 통하여 온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대사명의 내용은 각 복음서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선교의 권위를, 마가는 선교의 범위가 전 세계적임을, 누가는 선교의 사수를, 요한은 영적 자력과 요구를 각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며 이 명령은 2000년 선교 역사에서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사상이나 연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마태복음 28:19-20의 대사명에서 해석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 (Disciplo)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족속(아직 11,000여개의 미전도족속이 있습니다)에게 보내어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세례를 주어 가르쳐 제자를 삼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교위원회 제공)

선교 정보 나누기 - 우간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과 AIDS로 인한 죽음 속에 신음하고 있다-

우간다는 참 아름다운 나라다.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가다 보면 국경선에서부터 땅색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케냐의 붉은 흙이 아니라 검붉은 기운진 땅이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는 나라이다.

면적은 236,000Km²이며 기후는 일년 내내 섭씨 25도 정도로 연교차가 적다. 동부는 냇다, 서부는 자이로, 남부는 르완다와 탄자니아, 북부는 수단과 국경을 접한다. 인구는 대략 80-200만으로 추산(아민 독재 치하와 그 이후의 내란, 기근, 종족상쟁 등으로 얼마나 사망했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되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우간다는 종족간의 세력 다툼으로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1971년 권력을 장악한 이디 아민은 포악한 독재정치를

감행하였고 군대는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여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었다. 아민은 경제정책으로 아시아 기업을 추방하였는데 경제의 주역들이었던 아시아인들의 추방으로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간다는 에이즈 감염율이 전 국민의 60%나 된다. 에이즈로 인한 다수 노동 인구의 사망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수많은 어린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우선하던 나라였으나 현재는 이슬람을 믿는 대동령이 선출된 이후에 우간다를 이슬람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개신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마을의 입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다. 이슬람 사원은 모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입학하여 정통 회교도가 된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나라 우간다.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을 그들은 그 속에 살면서도 볼 수 없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가난과 AIDS, 죽음, 기리의 고아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림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일 오후 4시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방실에서 있다. 선교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은 어떠한 불결한 후회 만이라도 중요함을 잊지 말고 이 기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도제목

1. 선교 사역을 위하여

- ① 이슬교 선교사의 이질적복음주의 신학과 사역을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 ② 안식일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디언 사역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마태의 추방이 복음화 되도록)
- ③ 수단(김영대 선교사)복음전도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 ④ 고든민 케냐 평신도선교사가 사역하는 마사이부족 레레조종학교의 교실 증축을 위하여
- ⑤ 이기성 호주 평신도선교사의 미전도종교 선교 정탐을 통해 효과적인 사역이 이뤄지도록
- ⑥ 김형선 뉴욕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이민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도록
- ⑦ 유병재, 김철형 일본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으로 우상의 나라 일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2. 북한을 위하여

- ① 지하교회의 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 ② 육의 양식과 함께 복음도 함께 전해지도록

